



주 제:	“그 날과 그 시간 ”	“연중 제 33 주일 ”	2009년 11월 15일
복음 묵상:	[마르 13,24-32]	[다니 12,1-3]	[히브 10,11-14.18]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2000년에 우리 사회는 잘못된 종말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다시 지구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종 잘못된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마야인의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언제 어느 시간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회의를 느끼거나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피하고 싶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때가 어느 순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 나아가 희망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 할수록, 그것에 매여 있을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종말의 순간, 죽음의 순간은 언젠가 우리에게 꼭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날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상 영광의 영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뜻밖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만남의 기쁨이 훨씬 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종 송현석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 효식 필립보네리 총무님의 막내 Stephen 이 지난달 New York 에서 있었던 국제 현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여, 뉴욕 카네기 홀에서 오는 11월 22일(일) 연주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번 연주를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위령성월 합동 연도

- 합동 위령성월 연소 : 11/15 (일) 교중 미사 후 장소: 본당

송영오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11/18(수) 7:30 pm 성당. 주제 “가정은 구원으로 가는 길”

한인들을 위한 신앙 강좌

- 11/21(토)10:00AM-3:45 PM: 강사: 이관배 스테파노 신부님, 박 소피아 수녀님과 송영오 베네딕도 신부님
장소 :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5001 Great America Parkway, Santa Clara, CA

+ 복음 [마르 13,24-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1분 명상

♡ " 마음의 향아리 " ♡



사람은 누구나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꿈, 소망, 사랑, 순수, 지혜,
 진실, 인내, 용기, 자유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태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예를 높이고, 재산을 늘리고,
 학문을 쌓고, 지혜를 찾아도
 늘 마음은 허전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마음의 향아리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온갖 것들 다 버리고
 물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고 담담한 것으로
 마음의 향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곳에는 티가 없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과 미래를 향하여
 생각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파란 가을 하늘을 담을 수 있고,
 흘러가는 구름도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지혜의 풀꽃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